

6-17-2012 주간 메시지

성서: 시편 90:1-17

본문: 베드로전서 1:23-25

제목: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함으로 인하여 소망없이 하면서 한탄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여 건강하고 부유하며 명예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복받은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존경받으며 살다가 죽을 때에도 남은 자녀들이 거창한 장례식을 치러주게 된다.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자식 복마저 없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비판하며 자살까지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시 49:20)라고 말씀하신다.

옛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겼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생에서 자기들의 땀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 주나이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14-15)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유일한 소망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뵈게 될 때에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만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가 가졌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어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말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너는 이제 너의 짧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어지지 않은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오지 않은 때에 그리하라. 그 날에는 짐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강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으므로 땀뿔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다.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땀뿔질하는 소리가 낮아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또한 그때에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그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육구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이다. 그때에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2:1-8)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을 증거한 것이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진저!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대하여 아주 짧막하고 간단하게 증거하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썩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썩과 같으며 썩은 마르고 썩은 겨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벧전 1:23-25)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육신의 삶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같다는 것이다(약 4:14).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이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썩어질 조상의 씨를 받아 살다가 그들처럼 무상하게 죽어간다는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썩지 않는 씨가 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길만이 모든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세상의 어느누구도 자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줄 수 없으며 오직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겠는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차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진리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육신이 썩과 같이 늙어 시들고 모든 영광도 저절로 썩어 떨어지는 비참함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가질 수 없는 축복의 기회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과 함께 영원한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축복을 받을 것이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주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엡 1:4-7)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 상에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지 한 평생 잘먹고 즐기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그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상관 없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개나 돼지와 다름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엡 2:1-6)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다. 육신이 죽었어도 영이 거듭난 사람은 산 자요, 육신이 살았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죽은 자인 것이다. 죽은 자들의 혼은 지옥이라는 불 속에 다시 묻어버릴 것이며 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누구도 지상에서 유산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할렐루야!

6-17-2012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90:1-17

Main scripture: 1Peter 1:23-25

Subject: The blessed opportunity of them all that are born in the earth

It is heard very often that people curse their life as miserable one without any hope. They justify themselves saying, no other way but desperately miserable, for no more chance for their one time and short life. It is absolutely true that everyone has only one chance of life in the world. But it is matter of thinking whether it is good or bad. Someone so called successful men could consider themselves blessed one boasting them with their possession as well as high level of social position, and having many children, and being respected by them. and honorable funeral service arranged by the children. On the other hand, we hear very often through the Medias, someone that are seriously ill and poor and, even no blessing for their children commit suicide not observing their affliction. But the word of God says, **“Man that is in honor, and understandeth not, is like the beasts that perish.”**(Ps. 49:20)

David, the king of Israel left a word that cannot be understood by worldly men: **“¹⁴From men which are thy hand, O LORD, from men of the world, which have their portion in this life, and whose belly thou fillest with thy hid treasure: they are full of children, and leave the rest of their substance to their babes. ¹⁵As for me, I will behold thy face in righteousness: I shall be satisfied, when I awake, with thy likeness.”**(Ps 17:14-15)

He was able to have everything that he wanted as the king, but he had only hope in his life that is to see the Lord in his likeness in the day of resurrection in the future. Who can understand his confession?

The king Solomon, the son of David also left a very important message toward the world after his glorious life satisfying himself. It was also a kind of word that man cannot understand:

“¹Remember now thy Creator in the days of thy youth, while the evil days come not, nor the years draw nigh, when thou shalt say, I have no pleasure in them; ²While the sun, or the light, or the moon, or the stars, be not darkened, nor the clouds return after the rain: ³In the day when the keepers of the house shall tremble, and the strong men shall bow themselves, and the grinders cease because they are few, and those that look out of the windows be darkened, ⁴And the doors shall be shut in the streets, when the sound of the grinding is low, and he shall rise up at the voice of the bird, and all the daughters of musick shall be brought low; ⁵Also when they shall be afraid of that which is high, and fears shall be in the way, and the almond tree shall flourish, and the grasshopper shall be a burden, and desire shall fail: because man goeth to his long home, and the mourners go about the streets: ⁶Or ever the silver cord be loosed, or the golden bowl be broken, or the pitcher be broken at the fountain, or the wheel broken at the cistern. ⁷Then shall the dust return to the earth as it was: and the spirit shall return unto God who gave it. ⁸Vanity of vanities, saith the preacher; all is vanity.”(Eccl. 12:1-8)

He testified that all men in the world shall reach the same conclusion without any discrimination. What a blessed men that understand his words!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eter testified of life very shortly, and he also showed the solution of life: **“²³Being born again, not of corruptible seed, but of incorruptible, by the word of God, which liveth and abideth for ever. ²⁴For all flesh is as grass, and all the glory of man as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eth, and the flower thereof falleth away: ²⁵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th for ever. And this is the word which by the gospel is preached unto you.”**(1Pet 1:23-25)

In other word, the flesh of man is like a fog that stay for a moment and disappear very shortly (James 4:14). All men are living in vain whether they may be rich or poor or noble or not. They are dying in vain as their forefathers that inherited the corruptible seed. So they think that they were not supposed to be born. Apostle Peter gave the solution to the world; it is the seed incorruptible that is the word of God that is eternal. He testified of the only way to be delivered from vanity is to receive the word of God that has the life eternal to be born again of the Spirit of God. No one can give the seed eternal but Jesus Christ that was manifested in flesh; How can is it possible to receive the eternal life? God is willing to give the grace only to them that kneel down at his feet understanding them so miserable sinners. It is the real curse that is not to be believed in the word of God.

Whosoever that is born in the earth can be blessed to be born again of the word of God, and to receive the eternal life, and to be the children of God without any discrimination. God wants all men understand his will in their short life to save all men understanding themselves miserable like withering grass and falling flowers because they were born of sin. Any one that is not born in the earth cannot have this kind of blessing at all. God became a man to solve the problem of sin, for sin is the only problem for all kind of curses. Therefore Jesus Christ delivered us from death to life and from curse to blessing through his death for our sins. He wanted to give the eternal blessing to all men in the world. This is the good news so called the gospel of Christ; and any one that receives the gospel by faith is to be blessed eternally.

Apostle Paul testified that all men shall be blessed to be adopted as the children of God in Christ: **“⁴According as he hath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 ⁵Having predestinated us unto the adoption of children by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⁶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wherein he hath made us accepted in the beloved. ⁷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Eph. 1:4-7)

In other word, God had planned to give all men eternal life to the children of God before he made foundation of the earth. Therefore whosoever that is born in the earth to receive this blessing, not for living in flesh, and disappearing in vain. Whosoever may understand the love of God is blessed regardless of their situation not to be foolish as dog and pig.

Apostle Paul sent an epistle unto them that received such kind of blessing: **“¹And you hath he quickened,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²Wherein in time past ye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now worketh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³Among whom also we all had our conversation in times past in the lusts of our flesh,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⁴But God, who is rich in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⁵Even when we were dead in sins, hath quickened us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e are saved); ⁶And hath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Eph. 2:1-6)

God shall come to the earth to judge the quick and dead. The born again spirit is the quick even though they are dead; the dead even though they are still alive. He shall bury the dead soul in the lake of fire called the hell; and he shall take his children to heaven. God doesn't want anyone to vanish in vain from the earth, for God is love. **Hallelujah!**